

백색가전의 틀 깬 ‘비스포크’... 폴더블폰 대중화 ‘Z폴드3’

삼성전자 부스, 40분 넘는 대기줄 자율주행 청소 ‘제트’ 시연에 탄성 임의 선택 가능한 ‘더 프레임’ 인기

삼성전자 부스는 입장을 기다리는 인파로 가득했다. 비스포크와 더 프리스타일 등 신가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고, 특히 갤럭시 Z 폴드 3를 보려는 관람객들이 모여 ‘폴더블폰 대중화’를 실감케 했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 부스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람객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삼성전자 부스는 입장을 위해 등록을 하고서도 40분 가량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대표 공간은 비스포크 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는 비스포크 키친 패키지를 다양한 조합으로 배치했다. 관람객들은 비스포크 냉장고 등 라인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제품을 직접 만져보고 비교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비스포크 냉장고 프렌치도어 4도어 모델은 ‘에메랄드 그린 스틸’과 ‘클레멘타인 글래스’, ‘화이트 글래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2에 부스를 열었다. /삼성전자

조합으로 백색가전의 틀 깨는 제품으로 주목받았다.

아울러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와 건조기, 에어드레서와 슈드레서 등을 패션 소품들과 전시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가전을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로봇 청소기인 비스포크 제트를 시연하는 전시장은 관람객들에 끝없는 탄성을 불러일으켰다. 음성인식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등 청소 노동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보여줬다.

처음으로 소개하는 더 프리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TV 라인업과 함께해 가

장 많은 관람객을 불러모았다. 작고 가벼우면서도 임의의 벽에 대형 스크린을 구현하는 편의성으로 아웃도어 생활에 익숙한 북미 지역 소비자를 공략했다. 천장에 매달아 식탁을 비취 독특하게 꾸미는 모습도 구현해 다양한 활용성도 자랑했다. 바로 옆에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TV ‘더 테라스’를 배치해 조화를 이뤘다.

더 프레임도 인기 모델이었다. NFT까지 도입하며 다양한 예술 작품을 집에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뿐 아니라, 다양한 프레임 임의로 선택해 입맛대로 꾸밀 수 있도록 한 전시에도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라인업 소개 공간. /김재용 기자

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인파가 몰린 공간은 갤럭시 Z 폴드 3 전시관이었다. 갤럭시 S21FE도 처음 전시됐지만, 오히려 관람객들은 갤럭시 Z 폴드 3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폴더블폰이 북미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다.

비스포크 제트도 1분기 글로벌 시장 출시를 앞두고 성능 뿐 아니라 소품으로의 활용도를 인정받는 분위기였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 LED와 삼성전자의 ‘스크린 포 울’ 철학을 따르는 솔라셀 리모컨과 포장재를 재활용해 만든

공간에 관람객들이 몰렸다.

이강협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올해는 비스포크 홈이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할 계획”이라며 “북미를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에 비스포크의 DNA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베이거스(미국)=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AI·로봇 中企, ‘K-혁신기술력’ 뽐냈다

CES 혁신상 수상 성과도 거둬 사운드 미러·인공인간 등 다채

인공지능(AI) 및 로봇 기업들이 5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전시회 ‘CES2022’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전시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ICON.AI·마인즈랩·에이모·웨이센 등 AI 및 데이터 기업, 로봇기업 두산로보틱스가 CES에서 자사 기술력을 뽐내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일부 제품은 이번 CES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AI 디바이스 전문기업 ICON.AI(아이콘에이아이)는 사운드 미러(SOUND MIRROR™) 제품으로 오디오 부문에서 3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사운드 미러는 세계 최초의 폼팩터로 거실, 침실, 욕실 등 공간에서 임팩트

있는 프리미엄 사운드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AI 기반 음성 인식 스마트 미러이다. 일반적인 미러와 음성 인식 스마트 스피커를 결합해 하나의 일체형 디자인으로 새로운 폼팩터를 구현한 것이다.

스마트 미러는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기기와 연동되며, 무선으로 스포티파이, 아마존뮤직, 애플뮤직, 판도라 등 다양한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또 AI 비서 아마존 알렉사가 탑재돼 모든 기능을 음성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조명 등 스마트 홈도 제어할 수 있다.

AI 메디테크 전문기업 웨이센이 개발한 AI 내시경 영상분석 소프트웨어가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했다. CES 혁신상에서 AI 내시경 영상분석 소프트웨어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시경실에서 검사 중 인공지능

이 실시간으로 용기나 함몰된 이상 부위를 감지해, 의료진은 이상부위를 내시경실 현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소화기 건강에 대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마인즈랩이 CES 2022에 AI 기술로 개발한 인공인간을 전시했다. 신한은행과 공동 부스를 운영하는 마인즈랩은 신한은행에 도입한 블루메니저(청원경찰)와 점포 창구 은행원을 지원하는 인공인간을 출품했다. AI 데이터 컴퍼니 에이모는 CES 2022에 참가해 최신 스마트라벨링 기술 소개 이벤트를 시연하고 있다. 에이모는 스마트시티관에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 분야에 필요한 데이터를 AI가 자동 라벨링 하는 ‘스마트 라벨링’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유영상, 노태문 만나 5G 등 ‘초협력’ 논의

(SKT 사장) (삼성전자 사장)

CES ‘삼성전자 전시장’ 관람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이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을 만나 5G,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폭넓은 ICT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2’ 삼성전자 전시장에 방문했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이 그를 맞이했다.

유 사장은 갤럭시 S21FE(팬에디션) 전시 부스에서 “가볍고 플래그십 못지않게 잘 만드셨네요”라고 칭찬했다. 이에 노 사장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전 모델보다 가벼워졌고 기존 플래그십 보다 가격을 100달러 낮췄다”고 설명했다.

노 사장은 갤럭시 에코시스템 부스에서 “갤럭시 S22에서 갤럭시 에코시스템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왼쪽)이 5일(현지시간) ‘CES 2022’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과 함께 삼성전자 전시관을 관람하고 있는 모습. /SKT

기능을 한 단계 강화할 것이고, 소비자 경험 중심으로 높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 사장은 “우리도 같이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유 사장은 갤럭시 Z 폴드3를 비스포크 에디션 조립하는 시연을 보면서 “이 아이디어는 누가 냈냐”면서 흥미롭게 구경하기도 했다.

/채윤정 AI전문 기자

‘트리플 제로’ 내세운 GM...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선포

메리 바라 회장 기조연설 웨보레 실버라도 EV 공개

제너럴모터스(이하 GM)이 전동화에 이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미래 사업을 구체화했다.

GM 메리 바라 회장 겸 CEO(사진)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2’의 기조연설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CES의 주관사 미국소비자기술협회



(CTA)는 “바라 회장이 전기의 미래가 가진 잠재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며 산업의 변곡점을 만들어 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바라 회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개막식에 맞춰 웨보레 실버라도 EV를 공개하고 GM의 ‘트리플 제로(Triple Zero) 비전’을 공유했다. 트리플 제로는 ▲탄

소배출제로(Zero Emission) ▲교통사고 제로(Zero Crash) ▲교통체증 제로(Zero Congestion)로 대표되는 GM의 미래 전략이다.

1980년 산학협력 인턴으로 첫 업무를 시작한 그는 2014년 최고경영자에 오를 때까지 GM에서만 근무하며 커리어를 쌓아왔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기후 변화 관련 과학의 독실한 신봉자’라고 소개할 만큼 환경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의 첫 번째

목표는 GM의 탄소 배출 없는 차량 생산이다.

바라 회장의 제로 탄소 프로젝트는 디트로이트의 햄트레이크 조립공장을 GM의 첫 번째 전기차 전용 생산 라인으로 개조하면서 큰 걸음을 내딛었다. GM은 작년 11월 17일(현지시간) 문을 연 이 공장을 ‘팩토리 제로(Factory Zero)’라고 이름 붙였다.

팩토리 제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총 22억달러(약 2조 63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었다. 100년이 넘는 GM 역사상 단일 공장 최대 투자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배출가스를 배출

하지 않는다.

GM은 ‘교통사고 제로’, ‘교통체증 제로’ 사회를 팩토리 제로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Ultium)과 자율주행 시스템 크루즈(Cruise)와 함께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바라 회장의 기조 연설과 함께 CES 2022에서 공개되는 실버라도 EV는 개발단계부터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Ultium)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탄소 배출 없이 풀사이즈 픽업 트럭 특유의 힘과 견고함, 내구성, 퍼포먼스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양성운 기자 ysw@